

金俊勢力的 形成과 그 向背

——崔氏武人政權의 崩壞와 관련하여——

鄭 修 芽*

I. 머리말

IV. 崔氏家の 붕괴와 金俊勢力的 向背

II. 金俊의 출세와 그의 정치적 위치

V. 맺음말

III. 金俊勢力的 형성과 그 성격

I. 머리말

《高麗史》의 金俊傳은 그의 父인 金允成이 賤隸의 신분으로 주인을 배반하고 崔忠獻에 투탁하여 노예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高麗史》의 다른 기록은 高宗 45년(1258) 3월에 大司成인 柳璥과 함께 金俊 등이 崔誼를 배고 政權을 王에게 돌렸음을 언급하고 있다.¹⁾

간략하긴 하지만 두 기사는 崔氏家の 집권자와 金俊이라는 인물과의 떼어 수 없는 상호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더구나 金俊이 崔氏家の 마지막 집권자인 崔誼를 誅殺하였던 장본인이자, 그 이후 약 10년간의 실권자였음을 상기해 볼 때, 崔氏武人政權에서의 金俊의 정치적 위치와 그 역할이 결코 적지 않았으리라고 믿어진다.

그런데, 종래의 崔氏武人政權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崔忠獻·崔怡의 집권 시기에 있어서의 정치 기구나 정권의 성격에 관심이 집중되어 온 듯하다. 비록 崔氏家の 몰락을 연구의 일부로 다루었던 논고는 있지만, 崔氏家の 붕괴와 관련된 金俊勢力에 주목한 연구는 별로 없는 것 같다.²⁾ 이

* 西江大學校 史學科 大學院

1) 《高麗史》24 高宗 45年 3月 丙子.

와 같은 이유에서, 필자는 崔沆・崔煥代의 崔氏家의 붕괴 과정을 金俊이라는 인물의 집권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金俊의 정치적 위치를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그의 출세 배경과 崔氏家에서의 그의 역할을 밝힘으로써 해결될 것이다. 다음으로, 金俊과 관련을 맺는 세력 및 그들의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崔煥를 주살하는데 가담한 金俊一派의 출신 기반과 崔氏執權者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金俊이 崔氏家를 붕괴시켰던 직접적인 계기와 그것을 통한 자기 세력 기반의 안정과 강화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이것은 崔氏政權 후반의 對蒙關係와 金俊一派의 향방을 추적함으로써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찰이 崔氏武人政權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나아가 金俊政權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金俊의 출세와 그의 정치적 위치

崔氏家의 집권 기간 중에 金俊의 정치적 위치나 그의 활약에 대하여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³⁾ 그러므로, 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집권하게 되었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金俊이 당시에 어

- 2) 崔氏家의 몰락을 다루었던 논고는 다음과 같다.

邊太燮, 〈武臣亂과 崔氏政權의 成立〉(《한국사》 7, 1973)・姜晉哲, 〈蒙古의 侵入에 대한 抗爭〉(《한국사》 7, 1973)・Shultz, Edward John. "The Ch'oe Dilemma."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Korea under the Ch'oe House; 1196~1258*,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1976) 許興植, 〈1262年 尙書都官貼의 분석〉(《韓國學報》 27・29, 1982)・洪承基, 〈崔氏武人政權과 崔氏家의 家奴〉(《震檀學報》 53・54, 1982; 《高麗貴族社會와 奴婢》, 1983)・南仁國, 〈崔氏政權下 文臣地位의 變化〉(《大丘史學》 22, 1982)・野澤佳美, 〈金俊의 政變について〉(《史正》 12, 1982)・金塘澤, 〈武臣政權時代의 軍制〉(《高麗軍制史》, 1984).

- 3) 洪承基는 앞의 논문에서, 崔氏家의 家奴들의 정치적 활동과 역량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金俊은 '崔氏執權者의 심복 가운데에서도 가장 충실한 심복'(앞의 책, p. 295)이며, '崔氏執權者와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정치인의 하나였다'(앞의 책, p. 296)고 보고 있다. 비교적 金俊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는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었던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金俊이 집권하기까지의 출세 과정을 알아보자. 《高麗史》130 金俊傳의 기록 중에 그의 출세와 관련된 기사로 중요한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A₍₁₎ 金俊 初名仁俊 父允成 本賤隸 背其主 投崔忠獻爲奴 生俊及承俊.

A₍₂₎ 俊 狀貌魁岸 性寬厚 謙恭下人 又善射 好施與 以得衆心 (中略) 朴松庇·宋吉儒等 譽於崔怡 怡遂倚信 每出入必使俊扶持 授殿前承旨.

A₍₃₎ 怡之召沆爲後 俊有力焉 及沆襲權 補別將 益親信.

A₍₁₎은 金俊의 신분에 대한 기록이다. 그의 父인 金允成은 賤隸로서 崔忠獻에게 투탁하여 그의 家奴가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金允成이 崔氏家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金俊이 그의 아버지대에서부터 崔氏家에 몸담아 온 家奴였음은 분명하다. 金俊이 용모가 웅장하며 성품이 관대하고 아랫 사람에게 겸손하며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해서 衆心을 얻었다는 A₍₂₎의 기록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노예의 그것과는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활을 잘 쏘았다는 그에 관한 설명은, 崔氏家의 한 武士로서 그를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金俊이 朴松庇와 宋吉儒의 천거로 崔怡를 호위하게 되었고, 그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崔怡의 집권기에는, 그의 직함이 殿前承旨였던 것을 통하여, 崔怡가 출입할 때 부축하고 호위하는 정도에 그쳤을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闕內에서 宦官의 실질적 권력이 그 직위보다 훨씬 컸었던 사실과 비유해 본다면,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하지만은 않았으리라고 짐작된다.

金俊이 崔氏家의 중요 인물로 부각된 것은 崔沆의 집권과 관련이 있었던 듯하다. A₍₃₎에서 살필 수 있듯이, 그는 崔沆이 崔怡의 후계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 이유로, 崔沆의 집권과 함께, 金俊은 別將職을 제수받고, 집권자인 崔沆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別將職이란 약 200名 정도로 구성된 단위 부대의 지휘관으로 추측되는 正七品

의 관직이다.⁴⁾ 또한, 이것은 그 이전까지 金俊에게 제수되었던 殿前承旨라는 南班職과는 달리 武班職인 것이다. 한층 더 관직을 끄는 것은 金俊과 崔氏家와의 관계가 崔沆을 거쳐 崔誼에 이르기까지 10년이나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직이 변함없이 別將職에 머무르고 있었던 점이다.

이와 같이 金俊이 崔沆執權期에 가졌던 官職上的 특징을 통하여, 그가 崔氏家에서 어떠한 정치적 위치를 차지했었는지 알아보자. 우선, 金俊에게 제수된 別將職은 일찌기 그가 받지 못했던 武班職이기에 崔氏家에서 그가 차지하는 성격이 崔沆의 집권에 즈음하여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 왜 崔沆이 金俊에게 굳이 武班의 別將職을 주었는지 그 구체적인 의도는 사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崔沆에게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동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를 입증할 만한 사료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전후하여 일어난 중요한 정치적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혹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는 없을까 생각한다. 崔沆의 집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널리 알려진 기록이 전한다.

(崔)沆 初拜左右衛上護軍戶部尙書(中略) 怡分與家兵五百餘人 及怡病 沆領兵入府 聞病殆 即遷其家 怡死 知吏部使上將軍周肅 領夜別抄及內外都房 欲復政于王 猶豫未決 殿前李公柱·崔良伯·金俊等七十餘人 歸于沆 肅亦附焉 合番擁衛(高麗史 129 崔忠獻 附 崔沆傳)

위의 기록에 의하면, 金俊은 崔怡가 죽었을 때, 정권을 王에게 돌리고자 했던 周肅의 음모를 사전에 봉쇄하여, 崔沆이 권좌를 이을 수 있게 한 장본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金俊과 그의 동료였던 李公柱·崔良伯 등이 함께 別將職을 제수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崔沆의 권력 이양 과정이 순탄치 못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무신 정권의 주요 군사력이었던 夜別抄나 內外都房의 통솔권이 집권자가 아닌 周肅에게 있기도 하였다. 이는, 崔沆의 집권 자체

4) 李基白, 《高麗兵制史研究》, pp. 73~74 참조.

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崔怡는 그의 사위였던 金若先에게 자신의 兵權을 물려 주기 위해 嬖妓의 소생이었던 萬全(沆)과 萬宗을 억지로 禪師로 만들어 斷俗寺과 雙峯寺에 내려 보냈었다.⁵⁾ 이들을 出家시킨 시기는 잘 모르지만, 崔沆을 다시 불러드려서 후계자로 정하고, 家兵을 나누어 준 것은 崔沆이 집권하기 약 일 년 전의 일이다.⁶⁾ 그러면, 후계자로 지목되어 있던 동안에, 金若先은 崔氏家에서 어떠한 정치적 활동을 하였을까. 아래의 인용문이 이런 의문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B₍₁₎ 大倉・八廩・地庫皆災 崔瑀及壻金若先皆擁家兵自衛 無一人往救者 火徹夜不滅(高麗史節要 16, 高宗 17年 7月)

B₍₂₎ 蒙古來屯宜義門外(中略) 京城洶洶 崔瑀與壻大將軍金若先 以家兵自衛 其守城者皆老弱男女耳(同上, 高宗 18年 11月)

위의 인용에서, 金若先은 항상 당시의 집권자였던 崔怡의 측근에서 家兵을 지휘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물론 家兵 통수의 최고의 권한은 崔怡에게 있었던 것이겠지만, 崔怡를 제외하고 家兵을 직접적으로 지휘・통솔할 수 있는 인물이 金若先이었을 것이다.⁷⁾ 그런데 여기서 金若先이 거느렸던 家兵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어져야 할 것이다. 京中の 창고들이 밤새도록 불에 타도 구하지 않았다면지, 蒙古의 침입이 目前에 이르러도 崔氏家의 호위만을 하였던 家兵이란, 崔氏執權者의 신변 보호만을 위해 편성된 군사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후계자로서의 金若先의 정치적 활동은 家兵의 통수에만 주력하

5) 최근 金塘澤은 崔怡가 두 아들을 禪師로 만들어 出家시킨 이유를 崔氏家의 재산 증식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앞의 논문, pp. 304~306) 그러나 崔怡에 의하여 崔沆이 소환된 것이 정치적인 의도의 표현이었듯이, 崔沆을 출가시킨 것도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6) 《高麗史節要》16 高宗 35年 3月

7) 金塘澤은 金若先이 崔怡와 함께 崔氏家의 家兵을 움직일 수 있었던 존재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앞의 논문, p. 306)

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하였으리라고 믿어진다. 이에 관계되는 기록을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

- B₍₃₎ 司空金敕 聞崔沆害己 欲先圖之 遣及第洪烈·春坊公子鄭瞻 飛書于伯父樞密院副使金慶孫 慶孫恐禍及 先告崔怡 怡因洪烈于街衢獄 鞠問其黨 先是 敕之召還也 將軍劉鼎 指諭奇洪碩 閔景威等 爲書 請於怡 以敕爲後 怡置而不問 至是 死流貶黜者四十餘人《高麗史節要 16 高宗 36 年 閏 2 月》
- B₍₄₎ 有人譖敕于怡 怡召責之曰 汝集無賴徒 欲何爲乎 髡其首 流河東 執其所親將軍金正暉·平虜鎮副使孫仲秀·茶房安琦等三十五人 投之江《高麗史 101 金台瑞 附金敕傳》
- B₍₅₎ 崔沆 遣郎將林庚 押前樞密副使周肅流于島 至熊川 沆殺之 肅 古名永賁·性好飾浮誇 與怡爲寮壻(中略)又流肅壻將軍崔宗弼·羅州副使李昀《高麗史節要 16 高宗 37 年 3 月》
- B₍₆₎ 沆 嘗以繼母大氏 助若先子敕 不右己 深怨之 乃奪大氏宅主爵 收其財產 令夜別抄皇甫俊昌等 投大氏前夫子將軍吳承續于海(中略)流大氏于海島 尋毒殺之 大氏族黨及諸奴婢 或殺或流 凡七十餘人《高麗史 129 崔忠獻 附 崔沆傳》
- B₍₇₎ (沆) 又遣將軍宋吉儒 沆金慶孫于海 以承續姻親也《高麗史 129 崔忠獻 附 崔沆傳》
- B₍₈₎ 刑部尙書朴暄 言於崔怡曰 今北兵連年入寇 民心疑貳 雖以恩德撫之 猶恐生變 今萬宗·萬全門徒 割剝民產 歛怨實多 南方騷擾 若兵至則恐皆叛而投彼矣 怡聞之猶豫 曾慶尙州道巡問使宋國瞻 亦寄書言之(中略)反謂暄離間父子 流黑山島 貶國瞻 爲東京副留守《高麗史節要 16 高宗 34 年 6 月》

위의 기록들은崔沆의 집권을 전후하여 벌어졌던 정적에 대한 일련의 숙청을 알려주고 있다. B₍₃₎은 金若先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金敕가 주동한 반란 음모를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그의 숙부인 金慶孫이崔怡에게 고향으로써 일단락 지워졌다. 그러나 이 이전에도 金敕와 그의 주종세력이 정권을 장악해 보려는 기도가 몇 차례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B₍₃₎의 將軍 劉鼎 등이 金敕를 추대하려 했다가 죽거나 유배된 사건이 있다. 또 이보다 앞선 B₍₄₎의 기록에 의하면, 高宗 30년에는 金敕가 무뢰배들을 모았다가 河東에 유배되었고, 이에 가담하였던 金正暉 등 35명이 投江되었다.⁸⁾

이러한 사실들은 金若先이 죽은 후에도, 그의 아들인 金敎에 의한 정권 탈취의 기도가 계속되었고, 그를 지지하는 군사력도 역시 작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B₍₆₎는 崔沆이 집권하는데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周肅에 관한 숙청 기사이다. 이 인용에서는 周肅이 崔怡의 寮壻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보는데는, 아래의 사료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된다.

將軍周瑄 通其叔父周永寶妻大氏 事覺 御史臺執大氏 鞠之 (高麗史 26 元宗 9 年 2 月 丙午)

이 기록에 의하면, 周肅——그의 옛이름이 周永寶였음을 B₍₅₎에서 언급하고 있다——의 妻가 大氏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周肅과 崔怡와의 동서 관계는, 바로 崔怡가 大集成의 딸을 後妻로 맞아드림으로써 맺어진 것이었다.⁹⁾ 그런데, 大氏 역시 金若先의 지지 세력이었음은 B₍₆₎에서 뚜렷히 나타난다. 따라서 崔沆은 계모인 大氏와 그녀의 前夫의 子인 吳承續 그리고, 그의 族黨·奴婢들까지 숙청하였다. 더군다나, 金敎의 모반을 사전에 고발하면서까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려 했던 金慶孫도 제거되기에 이른다. 金慶孫은 당시 상당한 무력을 행사하였던 金若先의 형제이므로, 崔沆은 그를 죽일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B₇).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周肅이 崔沆의 襲權에서 취했던 태도는 곧 大氏와 일맥 상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金若先의 세력은 武班이나 姻戚에 한하여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가령 B₍₈₎에 보이는 朴暄이나 宋國瞻과 같은 文人들도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朴暄이나 宋國瞻은 崔怡

8) 金塘澤은 崔怡가 金若先을 살해한 이유(《高麗史》 101 金台瑞 附 金若先傳 참조)를 崔怡에 대한 정치적인 謀叛事件과의 연루로 보며, 金敎의 유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앞의 논문, pp. 305~306) 즉, 金敎의 유배는 崔怡政權에 위협을 가할 만한 행동의 결과였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金若先의 살해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9) 《高麗史節要》 16 高宗 19 年 2 月

의 집권기에 政房에 소속되었던 文人들이었다.¹⁰⁾ 崔氏家の 私的 機構인 政房의 文臣들 가운데에서조차 金若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金若先은 崔怡의 후계자로서 崔氏家の 家兵을 지휘·통수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상당 수의 武臣과 文臣 그리고 崔氏의 姻戚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金若先의 세력을 더 구체적으로 崔氏家の 사적 기구와 연관시켜 말하자면, 家兵의 지휘자였던 金若先은 都房과 夜別抄를 통수할 수 있었던 周鼎과 政房의 文臣이었던 朴暄·宋國瞻 등을 자신의 세력 안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 그 외에 다수의 武臣들——이들이 崔氏家の 사적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이 崔氏執權者보다도 金若先과 더욱 밀착된 黨與를 형성하고 있었다.¹¹⁾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崔沆執權을 전후한 일련의 대숙청은 바로 崔怡의 집권기에 깊이 부식되었던 金若先의 세력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같이 崔沆을 지지하는 세력이 崔氏執權機構 안에서조차도 미약한 상황에서, 권좌에 오른 崔沆은 자신의 후계자에 관한 문제와 家兵의 통수에 관계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후계자는 그의 아들인 崔暄가 지목되었던 듯 싶다. 왜냐하면, 崔沆의 후계자에 관하여 논란된 기록을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기에, 일단 그렇게 믿어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家兵의 통수도 역시 崔暄가

10) 《高麗史》125 朴暄傳과 《高麗史》102 宋國瞻傳을 참고.

11) 崔氏武人政權에서의 家兵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종래의 일반적인 통념은 都房이 崔氏家の 私兵 또는 家兵의 대표적인 것으로, 崔氏執權者를 옹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旗田綱, 〈高麗의 武人崔氏의 家兵〉《洪津稔記念 史學論叢》, 1977 참고). 그러나, 최근 洪承基는 都房과 구별되는 崔氏家の 사병조직으로서, 崔氏家와 가장 가까웠고, 그 유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家奴集團으로서의 家兵을 지적한 바 있다. (앞의 책, pp.288~291) 본고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가명설을 따르고 있다.

말지는 않았을까 짐작된다. 앞서 살펴본 崔怡와 金若先의 사례를 상기해 보아서도 그러한 짐작이 큰 틀림은 없을 줄 안다. 아마도 家兵의 지휘자였던 金若先이 구축해 온 세력들로부터 시련을 겪어야 했던 崔沆으로서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崔誼는 崔沆의 후계자로서 家兵을 거느릴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을까.

誼 年少暗劣 不禮遇賢士(高麗史 129 崔忠獻 附 崔誼傳)

이 인용문은 高宗 45년, 崔誼의 집권당시를 말해주는 기록이다. 그의 성품이나 집권자로서의 자질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나이가 어렸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10년이나 앞선 崔沆執權 初期(高宗 36년)에는 더욱 어렸었음은 분명하다. 그의 生年을 알 수 없는 필자로서는, 高宗 36년 당시의 崔誼는 家兵을 지휘한다거나 후계자로서 정치에 참여할 만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미성년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따름이다. 이같은 상황은 崔沆으로 하여금 일단 후계자가 아닌 자에게 家兵의 통수권 위임토록 하게 했을 것이다.

崔沆이 崔怡로부터 물려받은 500명의 家兵은 崔沆에게 전적으로 충성할 수 있었던 私兵集團이었다. 또한 金俊을 위시한 수 명의 崔氏家의 家奴들은 崔沆의 집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바이다. 그런 상황에서 崔沆은 金俊에게 家兵을 지휘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같은 추정은 그가 이 때에 굳이 別將職을 제수받았었고, 그 직위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한층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본다. 즉, 집권자의 신변만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家兵은 인원수에 있어서 별다른 변동이 없었을 것이고, 그 구성원의 출입도 어느 집단보다도 적었으리라 짐작된다.

崔沆은 家兵長이 崔沆 자신에게만 충성하길 바랬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崔沆이 家兵長에 대하여 신증을 기하였던 몇가지 점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家奴를 선택하여 家兵長을 삼았으며, 또한 그들에게 낮은 무반직을 제수하였다는 점이

다. 아마도 崔氏家를 벗어난 정계에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려한 것인 듯하다. 둘째는, 家兵의 통수를 襲權의 공로자인 李公柱·崔良伯·金俊 등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맡기었다고 보이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관직을 똑같이 한 것은 家兵 통수의 권한을 어느 한 사람이 장악하지 못하고, 서로 견제케 함으로써 그들 세력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려는 세심한 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家兵을 어떤 방법으로 지휘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힘들다. 崔氏家의 여러 私的 機構에서 그러하였듯이, 몇인가의 番으로 나누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해 볼 따름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착오가 없다면, 金俊은 崔沆의 집권과 함께 崔氏家 家兵의 지휘자가 되었고, 그에 따라 別長職을 제수받았으리라는 점은 믿어도 좋을 줄 안다.

賤隸出身이었던 金俊이 家兵의 지휘를 맡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출세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앞서 金若先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보았듯이, 家兵長이 가지는 일정한 정치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신분이나 관직 등의 약점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즉, 崔氏家의 사적 기구 중에서도 집권자와 가장 밀착된 군사 집단인 家兵의 지휘관은, 집권자와 사적으로 가장 밀착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권자에게 자신의 권한이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정책에 대한 조언이나 인물의 추천——아마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되는——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본다. 이런 金俊의 정치적 입장은 자연히 金俊을 추종하는 일군의 집단을 형성시킬 수도 있었으며, 혹은 金俊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인물을 자기 세력 안에 끌어들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에 인용하는 林衍에 관한 기사가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C₁₁ 林衍 初名承柱 其父不知何許人 僑寓鎮州 娶州吏女 生衍 遂以鎮州爲貫 蜂目豺聲 捷以有力 能倒身臂行 或投蓋于屋梁 爲大將軍宋彥祥所愛幸 後歸其鄉 蒙古兵適至 衍與鄉人逐之 遂補隊正 有林孝侯者 通衍妻 衍知之 誘孝侯妻 通焉 孝侯

告有司 有司欲治衍罪 金俊壯其爲人 力救得免 又薦爲郎將 林衍常呼俊爲父(高麗史 130 林衍傳)

C(1)은 미친한 출신이지만, 金俊에 의해서 강하게 여김을 받아 죄에서 면하고 郎將의 직책까지 받게 된 林衍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金俊이 집권자에게 林衍을 천거하고, 그럼으로써 林衍과 父子를 칭하는 관계까지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집권자의 측근으로서 金俊이 행할 수 있는 역량의 하나로 꼽을 수 있겠다.

한편, 金俊의 정치적 역량이 崔氏家の 다른 사적 기구의 구성원들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다음에 인용하는 宋吉儒 事件에서 보여 주고 있다.

C(2) 宋吉儒 性貪酷便倭 起於卒伍 高宗時 謫事崔沆 爲夜別抄指諭(中略)累遷將軍 尋拜御史大丞 有司以承賤 不署告身 沆強逼 乃署 加大將軍 爲慶尙道水路防護別監 率夜別抄 巡州縣 督民入保海島 有不從者 必撲殺之 或以長繩 連羈人頸 令別抄等 曳投水中(中略)按察使宋彥庠 劾報都兵馬使 其黨金俊等 私請大司成柳璈·待制柳能曰 吉儒 吾所善 聞按察劾書 已至都堂 若遽發勢 難營救 吾將乘間白令公 庶可免 願圖之 令公指崔誼也 璈等 以俊兄弟昵於誼 不得已陰啟堂吏 停稟(高麗史 122 宋吉儒傳)

金俊은 그의 黨이었던 宋吉儒가 酷吏로서 탄핵을 받게 되었을 때에 柳璈과 柳能에게 탄핵이 稟呈되는 것을 막도록 부탁하고 있다. 즉 金俊은 崔沆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宋儒吉와는 黨與를 맺고 있었으며, 柳璈·柳能에게는 사사로이 청탁할 수 있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柳璈은 崔沆代 이래로 政房에 소속되어 있었고, 柳能은 崔誼의 親信을 받던 崔氏家の 家臣들이었음을 확인해 볼 때,¹²⁾ 家兵의 지휘관이었던 金俊이 崔氏家の 다른 家臣들과의 私的인 유대를 통하여 정치적 역량을 증대해 갔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金俊의 관직과 崔沆의 집권에 관련된 정치적 배경 등을 검토함으로써 金俊이 崔沆執權期부터 家兵을 지휘하였던 崔氏家の 세력자였음

12) 柳璈과 柳能에 관하여는 다음 章들에서 상세하게 언급될 것이다.

을 알아 보았다. 아울러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家兵의 통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권자에게 인물을 천거할 정도의 발언권이 있었고, 崔氏執權機構 안의 다른 정치 세력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Ⅲ. 金俊勢力의 형성과 그 성격

그러면 崔沆의 상당한 비호를 받으며 家兵을 지휘하였던 金俊이 어떠한 이유에서 崔氏家를 몰락시킨 장본인이 되었을까. 그 원인을 알아보고, 金俊을 중심으로 하여 어떤 세력이 있었는지 검토해 보자.

金俊이 崔誼를 죽이게 된 배경은 崔誼의 襲權을 전후한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다. 金俊에 대한 崔誼의 태도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沆死 誼獨任崔良伯·柳能 而疎俊 俊心不平(高麗史 130 金俊傳)

위에서, 崔沆이 죽고 崔誼가 권좌에 오르면서 崔良伯과 柳能을 신임한 반면 金俊에 대해 소원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崔誼는 崔良伯·柳能만을 특별히 신임하게 되었고, 金俊을 멀리하게 되었을까. 다음에 인용하는 기록이 이런 의문을 풀어줄 좋은 단서를 제공해 주리라 본다.

沆嘗以誼屬宣仁烈·柳能曰 若輔導成就 獲承家業 則君等之賜也 及沆病 召仁烈·能執手曰 君等保護此子 吾死無恨矣 沆死 殿前崔良伯 秘不發喪 按劍叱侍婢勿哭 與仁烈謀 以沆言傳于門客大將軍崔瑛·蔡楨及能等 會夜別抄·神義軍·書房三番·都房三十六番 擁衛及發喪(高麗史 129 崔忠獻 附 崔誼傳)

위의 인용문은 崔誼가 집권하게 되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첫째로, 崔誼는 崔良伯을 위시한 柳能·宣仁烈·崔瑛·蔡楨 등에 의해 옹위되었으며, 이들은 夜別抄·神義軍·書房·都房을 통솔할 수 있었던 인물들로 보여진다. 특히 崔良伯은 崔沆의 집권에 공이 있어서 金俊·李公柱와 함께 別將職을 받았던 인물이다. 崔沆

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死後의 일처리를 선두에서 지휘하였던 것을 보아도 崔沆의 측근으로서 金俊과 같은 家兵 지휘관의 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家兵 지휘관이었던 崔良伯을 포함한 일군의 家臣이 崔誼의 등극에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崔沆의 死後 崔良伯의 태도를 살펴 본다면, 崔良伯의 적수가 그의 측근에 있음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즉, 發喪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侍婢들로 하여금 哭도 못하게 하며 칼을 매만지고 있던 崔良伯의 태도는 매우 적의에 찬 느낌을 준다. 셋째로, 崔誼의 襲權에 동원된 세력은 이미 崔沆의 의도에 의하여 사전에 준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崔誼의 습권과 관련된 이같은 사실들은, 崔沆의 金俊에 대한 신임이 崔良伯에 대한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컨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었을 이 두 사람과 李公柱 가운데에서 崔沆은 자신의 死後에 대한 일들을 崔良伯에게만 맡겼고, 崔良伯은 崔沆의 요구대로 崔誼가 권좌를 이어 받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가운데서 추대된 崔誼는 자연히 金俊을 소원하게 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金俊도 崔良伯 뿐만 아니라 崔誼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었리라 짐작된다. 그러므로, 崔良伯이 적의를 품을 수 있었던 대상이란, 崔誼執權 후 불과 일년만에 崔誼를 誅殺했던 金俊에 귀착시켜 볼 수 있지 않나 한다.

그런데, 崔誼를 주살하는 데에는 金俊을 비롯한 일군의 세력이 가담하고 있었다.

神義軍都領郎將朴希實·指諭郎將李延紹密謂璵·仁俊·承俊·公柱·將軍朴松庇·都領郎將林衍·隊正朴天湜·別將同正車松祐·郎將金洪說·仁俊子大材·用材·式材等曰 誼親近儉小 信讒多忌 不得爲之所 吾曹 恐亦不免 遂定計(中略) 仁俊率子弟趨神義軍 見希實·延紹云 事洩 不可猶豫 乃召集向所與謀者 及別將白永貞·隊正徐挺·李梯·林衍 使衍及指諭趙天柱·吳壽山 捕宗軌殺之 又召指諭徐均漢等 會三別抄于射廳 使人呼於道曰 令公死矣 聞者皆集 璵與松庇等亦至(高麗史 129 崔忠獻附崔誼傳)

〈表 1〉崔瑄誅殺에 참여한

區 分	人 名	出身(家門)	高宗45年 (政變前)	高宗45年(政變後)	高 宗 46年	元宗 1年
A	金 俊	崔氏家の 家奴	別 將 (家 兵)	將 軍	大將軍	樞密院右副承宣→ 樞密院副使→同知 樞密院使
	金承俊 (冲)	崔氏家の 家奴 金俊의 弟	隊 正 (家 兵)	中 郎 將		將 軍
	金大材	崔氏家の 家奴 金俊의 子	(家 兵)			
	金用材	崔氏家の 家奴 金俊의 子	(家 兵)			
	金式材 (頤材)	崔氏家の 家奴 金俊의 子	(家 兵)			
	a' 李公柱	崔氏家の 家奴	郎 將 (家 兵)			
	b	宋吉儒	起於卒伍	大 將 軍 (夜別抄)		
		朴松庇	郡 吏	將 軍	大 將 軍	
	c	柳 璥	祖父；參知政事 柳公權 父；翰林學士承 旨柳澤	大 司 成 (國子監)	樞密院右副承宣 →簽書樞密院事 →樞密院副使	同知樞密院事
B	朴希實	義州別將 역임	都領郎將 (神義軍)	將 軍	大將軍	
	李延紹		指諭郎將 (神義軍)			
	朴天湜 (天楹)		隊 正	散 員	別 將	別 將
C	林 衍	父；不知何許人	都領郎將 (夜別抄)			
	車松祐	祖父；參知政事 車偶	別將同正			
	金洪就		郎 將	御史中丞		
	白永貞		別 將 (夜別抄)	指 諭		將 軍
	徐 挺		隊 正			
	李 梯 (梯)		隊 正			
	趙文柱 (文甫)		指 諭 (夜別抄)	將 軍		給 事 中
	吳壽山		指 諭 (夜別抄)			
	徐均漢		指 諭			
	李宗器					

金俊勢力一派

[illegible]

위의 기록에 의해 정변에 가담한 자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崔氏家 崩壞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필자는 설명의 편의상 이들의 특징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점들을 중심으로 일람표를 작성해 보았다. <表 1>의 일람표에서 인물들의 배열은 崔氏執權者에 대한 태도라든가 金俊과의 관련 등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다.

A_a 집단에 들어 있는 인물들은 모두 金俊의 家族들이다. 金承俊은 그의 동생으로, 崔沆이 집권할 때 공을 세워서 隊正職을 제수받았다.¹³⁾ 아마도 金俊과 더불어 崔氏家 家兵의 한 구성원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 金大材·金用材·金式材는 모두 金俊의 아들들이다. 이들도 역시 家兵의 구성원으로 보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다.

A_a'의 李公柱도 金俊과 그 출세 과정이 흡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는 崔怡代에 殿前이란 직함을 받았고, 崔沆의 집권과 함께 別將으로 제수되었으며 家兵의 지휘관이 된 것 같다. 그와 崔氏家와의 관계는 崔誼가 주살되기 한 달 전의 다음과 같은 기록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高宗四十五年二月) 奴等白誼曰 公柱 身事三世 年老有功 請加參職 乃授郎將(高麗史 129 崔忠獻 附 崔誼傳)

여기서 家奴들이 어떤 의도에서 崔誼에게 李公柱의 參職을 요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당시까지도 그가 崔氏家의 家奴들 가운데 대표격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家兵의 지휘관이었을 것이고, 家兵에 대한 영향력도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A_a·A_a'의 인물들은 崔氏家 家兵의 지휘자였거나 그 구성원이었다.

그러면, A_b의 인물들은 崔氏家와 어떤 관련을 맺었는지 알아보자. 宋吉儒는 崔誼의 誅殺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당시에 그는 酷吏의 죄로 인해

13) 《高麗史》129 崔忠獻 附 崔誼傳.

유배중에 있었기 때문이다.¹⁴⁾ 그러나 宋吉儒는 엄연히 金俊의 黨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金俊勢力이 政變을 일으키는데 宋吉儒 事件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宋吉儒의 성격을 알아보는 일이 金俊勢力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는 이미 언급되었듯이 金俊을 崔怡에게 천거한 장본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宋吉儒가 崔怡代에 상당한 권력을 가졌던 인물이라고 보아지지는 않는다. C₍₂₎를 살펴보면, 그는 家系가 천하고 卒伍에서 입신한 인물로 崔沆에게 아침하여 夜別抄指諭가 될 수 있었다. 그가 갑자기 출세하여 大將軍까지 오르게 된 때에는 崔沆의 특별한 배려에 힘입어서였지는 않았나 한다. 그를 御史中丞에 제배할 때, 崔沆이 有司를 핍박하면서까지 告身에 署經토록 하였던 일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宋吉儒야 말로 崔沆의 손발이 되어 그의 정치적 의사를 행동으로 표출한 대표적인 심복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宋吉儒에 관해 다음이 참조된다.

沆 又遣將軍宋吉儒 沈金慶孫于海(高麗史 129 崔忠獻 附 崔沆傳)

이에 의하면, 崔沆은 자신의 정적을 살해하기 위하여, 宋吉儒를 파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遣將軍宋吉儒 徙清州民于海島(高麗史 24 高宗 43 年 8 月 庚辰)

라고 한 기록에 의하면, 蒙兵이 침입했을 때, 宋吉儒는 육지의 백성을 海島로 入保시키고 있었다. 이같은 그의 행동은 崔沆의 抗蒙 의사와 일치한다고 본다. 崔沆의 두려운 신임 아래서 그의 심복이 되었던 宋吉儒는 崔誼의 집권기에 酷吏라고 탄핵을 받고 유배되기에 이르렀다.

宋吉儒와 함께 崔怡에게 金俊을 천거했었던 朴松庇도 宋吉儒와 비슷한 성격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朴)松庇 初以德原吏 籍軍伍 以誅誼功累 官至參知政事(高麗史 130 金俊 附 朴松庇

14) 《高麗史》122 宋吉儒傳.

傳)

그는 원래 鄉吏였다가 軍伍에 입적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崔誼를 죽일 때에 이미 將軍이었다는 사실은 그도 역시 崔沆의 신임을 받아 출세하였던 것을 짐작케 한다. 이상의 A_b의 두 인물은 軍伍라는 미약한 정치적 지위로부터 崔沆대에 갑자기 출세한 崔氏家의 門客將軍이라 할 수 있겠다.¹⁵⁾

A_c의 柳璥은 일람표의 인물 가운데에서 유일한 文臣이었다. 그의 祖父인 柳公權은 明宗朝에 政堂文學參知政事를 역임했고, 그의 父인 柳澤도 역시 高宗 10년 右僕射의 지위로 考試官을 지냈던 인물이다.¹⁶⁾ 그러나 그 이후에 柳澤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崔怡대에 크게 등용되지 못했던 듯하다.¹⁷⁾ 柳璥의 정치적 활동은 崔沆의 집권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柳璥과 崔氏家와의 관련을 보기 위해서 몇 개의 사료를 인용해 보겠다.

D₍₁₎ 璥久在政房 與俞千遇 俱爲崔沆所厚 (中略) 璥遂與金俊等 謀誅誼 一日俊等詣璥議 璥不敢顯言 令家人進杏子一碗 俊等拜曰 已諫 蓋杏與幸 聲相近也 (高麗史 105 柳璥傳)

D₍₂₎ 蒙古使多可等五十人 賁文謙來諭曰 國王 雖已出陸 侍中崔沆·尙書李應烈·周永珪·柳璥等不出 是爲眞陸耶 (高麗史 24 高宗 41年 7月 戊午)

D₍₃₎ 高宗四十二年五月 大僕卿柳璥 取詩賦王胤等三十四人 (高麗史 74 志 28 選舉 2 國子監試)

15) 기록에서는 宋吉儒나 朴松庇가 門客將軍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모두 崔怡대에 金俊을 친거할 정도로 崔怡의 측근에 있었으며, 宋吉儒가 崔沆의 두터운 신임에 의해 출세한 사실을 본다면, 門客이었음이 확실한 듯하다.

16) 《高麗史》99 柳公權傳.

17) 《高麗史節要》14 高宗 3年 3月 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翰林學士柳澤 製疏云 雖自篤克勤之念莫敢怠荒 不幸遭多難之時 未能制御 諫議大夫朴玄圭曰 所謂未能制御者 指晉康公而言也 使吏告于崔忠獻 忠獻即呼澤問之 澤大笑自若

위에 인용된 柳澤을 살펴보면, 그는 崔氏政權에 반감을 가진 인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것이 그가 崔氏執權者에 의해 크게 등용되지 못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본다.

D₍₁₎에 의하면, 柳璥은 崔沆代에 오랫동안 政房에 소속되어 崔沆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었다. 그가 政房에서 인사권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高宗 42년에는 科擧의 고시관이 되기도 했음을 D₍₃₎에서 알 수가 있다. 또한 蒙古가 出陸하지 않는 대표적 인물로, 崔沆과 함께 柳璥을 지적하고 있는 D₍₂₎를 보아도, 그가 崔沆의 중요 家臣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崔沆의 死後, 불과 일 년도 못되어 崔曄를 죽일 모의에 가담하여 거사할 시기를 결정하는 등 崔氏家 몰락의 주동 인물이 된다(D₍₁₎).

지금까지 살펴본 A집단의 인물들은 비록 그 출신이나 직위에 있어서 서로 큰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들 사이에 몇 가지 공통점도 있었음에 주목이 간다. 첫째로, 이들 모두는 崔沆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다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미미한 존재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A_a의 가병 집단은 崔氏家の 家奴出身이었으며,¹⁸⁾ A_b는 본래 천한 신분이나 향리로서, 하급 장교가 된 자들이 아닐까 한다. 柳璥(A_c)은 비록 先代가 고관을 역임했지만, 崔怡代에는 그 가문의 세력이 미약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이들은 崔沆의 집권과 함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그의 측근 세력이 되었던 것이다. 즉 金俊이나 李公柱 등은 家兵의 지휘자로, 柳璥은 政房의 주요 인물로, 宋吉儒나 朴松庇는 門客將軍으로 급격히 출세하게 되었다. 이들은 崔沆에게 충실한 심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집단 B·C는 崔曄를 주살하는데 金俊이 직접적으로 동원시킬 수 있었던 軍事集團이다. 이들은 대개 神義軍이나 夜別抄의 크고 작은 단위 부대의 우두머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의 夜別抄나 神義軍은 崔曄를 옹위하는 세력이기도 했다. 예컨대, 夜別抄 단위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韓

18) 여기서 필자가 언급하는 '家奴'는 단순히 노예적 성격만을 갖는 일반 家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金俊이나 李公柱는 이미 崔怡代에 殿前承旨라는 직함도 받고, 崔璥의 襲權에 공헌할 정도의 인물이었으나, 崔沆代에 그가 家兵長으로서 누렸던 권력과 비교해 본다면, 崔氏武人政權 안에서 그다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宗軌·李日休는 崔誼側에 가담하고 있었다.¹⁹⁾ 이러한 점들을 살펴본다면, 夜別抄나 神義軍이 하나의 정치 세력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인물을 추적해 봄으로써 집단 B·C의 성격을 파악해야 유익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崔誼가 주살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기록 속에서, 단순히 金俊이 동원할 수 있었던 군사 세력이라고만 보기 힘든 인물들을 발견하게 된다. 朴希實과 李延紹가 그들이다. 그들은 제일 먼저 政變을 제안했으며, 神義軍이라는 군사 집단을 이끌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시켰다. 政變의 모의가 누설된 사실을 알자마자 金俊은 급히 神義軍의 진영으로 달려 갔다. 이러한 金俊의 태도를 통해 보아도, 朴希實·李延紹 그리고 神義軍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政變 直後인 高宗 45년의 衛社功臣序列에 이 두 사람은 나란히 3位와 4位로 올라 있다.²⁰⁾ 그러나 이들이 언제 어떻게 金俊의 세력이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政變 이전의 이들에 관해서 《高麗史》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다. 다만 《元高麗紀事》太宗 10년·11년(高宗 25·26년)條에,

E₍₁₎ 太宗十年十二月二十四日 獻(高宗) 遣其將軍金寶鼎·御史宋彥琦等 奉表入朝 十一年四月 奉旨 遣寶鼎僚屬校尉黃貞允·義州別將朴希實 從詔使先還

이라고 하여, 朴希實이 高宗 25년에 金寶鼎 등의 使臣을 따라 蒙古에 다녀왔던 사실이 밝혀져 있을 뿐이다. 그가 蒙古에 파견된 자신의 수행원이었다는 경력과 金俊과 黨與를 맺어 崔誼를 주살한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다음 기록에 엿보이는 朴希實의 정치적 성격에 주목해 보자.

E₍₂₎ 遣將軍朴希實·趙文柱·散員朴天植 如蒙古 請達魯花赤曰(中略) 今崔誼已死 即欲出水就陸 以聽上國之命 而天兵壓境 醫之穴鼠爲猫所守 不敢出耳(高麗史 24 高宗 45年 12月 甲辰)

19) 《高麗史》129 崔忠獻 附 崔誼傳.

20) 《高麗史》24 高宗 45年 4月 庚辰.

E₍₃₎ 朴希實·趙文柱 僭蒙使尸羅門等 來(高麗史 25 元宗 即位年 8 月 己卯)

E₍₄₎ 太孫 憲蒙使於散 於散實以出陸稽綏 大將軍朴希實對曰 頃者 吾與尸羅門 謁帝 勅臣等曰 爾國必運木石 以爲宮室 限三載罷兵 待營構畢 即令出居 況今嗣王未選 臣等何敢自辱 且帝豈妄言耶 於散默然(高麗史 25 元宗 即位年 11 月 乙酉)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金俊이 柳璥의 勢力을 억압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직후에,²¹⁾ 朴希實을 사신으로 파견했음을 알 수 있고(E₍₂₎·E₍₃₎), 또한 朴希實이 太孫의 수행원이 되어 언변으로써 蒙使를 압도하였다는 사실도 접해볼 수가 있다(E₍₄₎). 당시 對蒙問題의 해결이 崔氏政權의 존망과도 깊은 연관을 가졌던 만큼 金俊政權을 대변해야 했던 使臣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때에, 朴希實이 使臣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金俊의 신임과 朴希實의 충성으로써만 결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앞의 E₍₁₎와의 연관 속에서 생각해 보면, 朴希實은 高宗 25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사신의 수행원으로 蒙古와 접촉을 가졌으며, 이러한 경력을 통하여 그 자신이 사신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갈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므로, 朴希實이 가지는 정치적 성격이 抗蒙的인 崔氏家를 지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親蒙勢力에 치우쳤을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金俊政權의 성립에 매우 큰 공헌을 했던 朴希實은 E₍₂₎-(4)의 약 일 년 정도의 對蒙活動 이후, 金俊으로부터 소외되었거나 아니면 아예 제거되었던 듯 싶다. 왜냐하면, E₍₅₎에 보이는 일 이후에 그에 대한 기록은 元宗 3년의 衛社功臣의 序列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뿐, 그의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이다.²²⁾ 위에서 朴希實의 정치적 성격과 활동을 대략 추적해 보았다. 그러나 아직 의문은 남아 있다. 비록 朴希實이 崔氏家와는 상반되는 정치적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政變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더군다나 당시 그의 직위가 崔氏執權者와 견줄 수도

21) 金俊이 柳璥의 세력을 일단락 제거하는 때는 高宗 45년 11월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다음 章에서 언급하겠다.

22) 《高麗史》25 元宗 3年 10月 己未.

없는 낮은 관직이었고, 그와 함께 政變에 가담한 崔氏家의 家臣集團에게서는 親蒙의 요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과 의견을 일치할 수 있었을까. 혹시 朴希實을 배후에서 지지했거나 조정하였던 어떤 정치 세력이 있지는 않았을까.

朴希實에 관한 사료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필자로서는, 앞의 E₍₁₎에서 당시의 사신이었던 將軍 金寶鼎의 정치적 성격과 활동을 통해 朴希實과의 관계를 추적해 볼까 한다. 金寶鼎은 高宗 21년 蒙古軍의 屯所에 파견되면서부터 高宗 40년까지 세 차례나 蒙古에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하였으며, 蒙古軍이 침입했을 때마다 몇 차례나 그들의 屯所에 파견된 바도 있었다.²³⁾ 그 가운데 하나의 사례가 E₍₁₎이다. 이처럼 무려 20여년에 걸친 蒙古와의 접촉으로 이미 그가 親蒙의 성향을 띠었으리라는 점은 당연하지 않을까 한다. 그의 親蒙의 성향과 관련이 있는 다음이 참조된다.

E₍₅₎ 宰樞等 請遣王子 講和於蒙古 不聽崔滋·金寶鼎等 力請 許之(高麗史 24 高宗 44年 7月 癸酉)

E₍₆₎ 以蒙兵大至 令三品以上 各陳降守之策 衆論紛紜 平章事崔滋·樞密院使金寶鼎 曰 江都地廣人稀 難以固守 出降便(高麗史節要 17 高宗 46年 正月)

E₍₇₎ 遣太子僕 奉表如蒙古 參知政事李世材·樞密院副使金寶鼎等四十人 從之(高麗史 24 高宗 46年 4月 甲午)

E₍₅₎에서는, 崔氏家의 몰락을 불과 몇 달 앞둔 宰樞의 對蒙政策을 살펴볼 수 있다. 더군다나 文臣으로 대표되는 崔滋와 함께 武班出身인 金寶鼎이 그들의 講和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講和案은 E₍₆₎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졌다. 그 내용은, 강화도로부터 出陸하여 항복하는 것이었다. 곧 이어 太子의 蒙古行이 이루어졌고, 그 때에 金寶鼎이 역시 수행하고 있다(E₍₇₎). 이런 점들은 金寶鼎의 정치적 성격을 보다 확실하게 한다고 본다.

23) 《高麗史》23, 高宗 21年 2月 壬申·高宗 25年 12月·高宗 28年 4月·《高麗史》24, 高宗 38年 2月 癸丑·高宗 40年 11月 戊寅 條를 참고.

그런데, 金俊政權은 집권 초기에 親蒙政策을 통한 講和를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朴希實·金寶鼎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金俊이 실권을 장악한 직후, 朴希實 등을 蒙古에 파견함과 동시에 제수된 宰樞의 관리를 기록한 <表 2>를 검토해 보아도 알 수 있다.

高宗 45년 12월에 제수된 宰樞의 관리는 15명이다. 그 가운데 文武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6명을 제외한 9명 가운데에서, 武臣은 3명 뿐이다.²⁴⁾ 그들 가운데 한 명이 金寶鼎이었다. 당시 그의 官職은 正2品の 樞密院使였다. 李世材도 崔沆代 이래로 承宣·樞密院副使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 E₍₇₎에서 태자를 수행하던 점을 보아도 金寶鼎과 거의 비슷한 정치적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다. 朴成梓는 金俊의 政變 당시 명목상 대표자로 내세웠던 인물로, 金俊으로서는 일단 그에 대한 대우를 해야 했을 것이다.²⁵⁾ 그렇다면 <表 2>에 열거한 宰樞의 대신들은 親蒙的 성격을 갖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金俊이 실권을 장악한 직후에 단행된 宰樞의 관직 수여가 이와 같다면, 金俊의 정변은 반드시 이들 親蒙勢力과의 사전 연합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表 2>에 나타난 金寶鼎의 관직표를 보면, 元宗 1년 이후 그의 행방이 묘연하다. 다른 宰樞의 관리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致仕의 기록이나 卒記 조차도 없다. 이는 元宗 1년 이후 그의 정치적 활동이 순탄치 못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점 또한 朴希實의 경우와 같다고 하겠다. 필자의 지나친 추론일지는 모르지만, 朴希實은 高宗 25년 이후로 金寶鼎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왔으며, 金寶鼎의

24) 皇甫琦는 <高麗史> 23 高宗 32年 10月 壬午 條(遺新安公俊·大將軍皇甫琦如蒙古)에 의하면 武班인 것 같으나, 高宗 39년에는 과거의 시험관이 되고 있음을 볼 때 <高麗史> 73 志 27 選舉 1 참조), 그의 文武의 출신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가 이미 高宗 32년에 蒙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表 2>에 열거한 다른 宰樞의 大臣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金俊의 경우도, 그의 父가 高宗代의 장군인 金就勵라는 점을 본다면 武班의 가문 출신임은 분명하나, 그가 어떤 경유로 관직에 오르게 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文武를 구별짓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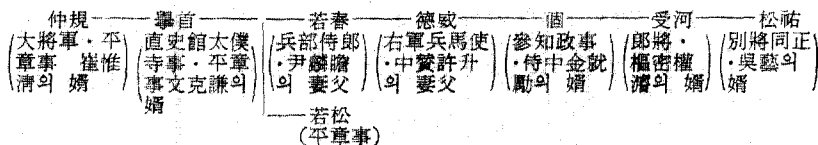
25) <高麗史> 129 崔忠獻 附 崔煊傳.

후원 아래 중앙의 군사 집단인 神義軍의 지휘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아울러 오랜 蒙古와의 접촉으로 親蒙의 성향을 강하게 갖게 되었을 것이다.

〈表 1〉에서 政變의 모의에 가담한 인물 중에 李延紹나 朴天植도 역시 朴希實과 같은 성격의 인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李延紹——元宗 3년 衛社功臣序列에는 李仁桓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朴希實과 함께 神義軍에 소속되었고, 정변에서 행동을 같이 한 점을 통해 본다면 입증되리라고 생각한다. 朴天植은 E₍₃₎에서 보이듯이 사신의 수행원이었거나, 蒙軍의 屯所에 파견되었던 점을 염두에 두면,²⁶⁾이도 역시 朴希實勢力에 가깝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자가 이들을 朴希實의 동조 세력으로 보는 것은, 이들이 金俊의 執權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元宗 초년 간에 그 행방을 감추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C 집단의 인물들에 주목해 보자. C₍₁₎에 의하면, 林衍은 매우 날랜 장사로 武人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宋彦祥을 쫓아 말력이 줄개로 있다가 다시 귀향했고, 蒙古가 침입함에 앞장서서 싸워 戰功을 이뤘다는 일련의 행위는, 그의 출세에 대한 야망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에 대한 복수심과 자존심이 강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인물을 金俊은 ‘壯하게’ 여겨서 천거하여 夜別抄의 郎將이 되게 하였다.

車松祐는 그 家門을 밝혀볼 수 있는 인물이다. 그의 家系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⁷⁾



26) 《高麗史》25 元宗 即位年 9月 丙辰.

27) 이 가계표는 《延安車氏世譜》(191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58—가50—47)와 李泰鎮의 〈15世紀後半期の「鉏族」과 名族意識〉(《韓國史論》3, 1976.8)

(表 2) 萬宗 45 年 12 月 에 제수된 宰樞大臣들의 官職變動狀況

〈凡例〉()는 당시의 관적으로 발령년도가 정확치 않은 것

[illegible]

그는 明宗朝 이후로 당대의 명문가와 혼인 관계를 맺으며 번성해 온 武人 가계의 출신이다. 그런데, 그의 父인 車受河 이후, 가문이 쇠약해지면서 車松祐는 別將同正이라는 직책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그의 가문의 이같은 변화는 무엇에 기인하는 것이었을까.

(高宗十年) 承宣車偶 無材 唯以令色媚人 嘗附忠獻用事 權傾中外 怡疾之(高麗史 129 崔忠獻 附 崔怡傳)

위의 사료에 의하면, 崔怡가 집권하면서부터 당대에 권세가 상당했던 車偶을 미워하고 있다. 車偶은 일시 유배보내진 적도 있으나 곧 복직되었다.²⁸⁾ 그 이후에 그가 펼친 기사들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음에 인용된 그의 死後記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王 如奉恩寺 以故參政車偶家(高麗史 23 高宗 21年 2月 癸未)

이같이 개인의 집을 절 등으로 만들었던 다른 예를 본다면, 대개가 죄인인 경우였던 듯싶다.²⁹⁾ 아마도 車偶은 崔怡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의 자손들이 崔氏家로부터 소외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金洪就·趙文柱·白永貞·吳壽山 등에 대한 기록은 金俊의 집권 이후의 몇몇 사례들이 전해지고 있다.³⁰⁾ 이들은 金俊의 집권 과정에서 그를 보좌하고 대변했던 것으로 보이나, 어떤 경위로 金俊의 군사력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들은 대부분 夜別抄의 단위 부대장이었다. 夜別抄가 家兵과 같이 崔氏執權者의 직속 지배하에서 밀착된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p.309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8) 《高麗史》129 崔忠獻 附 崔怡傳.

29) 이런 경우의 다른 한 예로, 高宗 38년에 崔沆이 朴暄의 집을 淨業院으로 삼아 城內的 尼僧을 모아 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高麗史 24 高宗 38年 6月).

30) 金洪就는 《高麗史》25 元宗 元年 3月·3年 10月·同書 26 元宗 9年 2月·同書 130 金俊傳을, 趙文柱는 同書 24 高宗 45年 12月·同書 25 元宗即位年 8月·元年 2月·元年 3月·同書 104 羅裕傳을, 白永貞은 同書 25 元宗 元年 3月·同書 130 金俊傳을, 吳壽山은 同書 105 俞千遇傳·同書 130 金俊傳을 참고할 것.

그들 가운데 일부는 崔氏家와 연결되는 군사력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령,

崔瑀 都房夜別抄都令李裕貞 自請擊賊 授兵百六十人 遣之(高麗史節要 16 高宗 22 年 8 月)

라고 한 것에서, 李裕貞은 夜別抄의 한 단위 부대의 우두머리였거니와, 그는 또한 崔氏家의 家臣으로서 都房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있다.³¹⁾ 崔氏家의 家兵長의 지위로 그 사적 기구 안에서 상당한 권력이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金俊이 이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미 언급되었던 林衍 역시 이들 범주에 넣을 수 있겠다.

崔瑀를 誅殺하는 정변에 참여했던 인물로 李宗器가 있다.

李宗器者 永州吏 逃入京 以勇力稱 從俊誅瑀 累遷大將軍(高麗史 130 金俊 附 李宗器傳)

永州的 鄉吏였다가 상경한 李宗器는 勇力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니와, 그도 역시 金俊이 ‘壯하게’ 여길 만한 자였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金俊이 그를 자신의 세력으로 편입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C집단의 구성원들 중에 분석이 가능한 사람들에 한하여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추측이 지나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일단 이들의 성격을 다음의 몇가지 점으로 요약해 보겠다. 첫째로, 본래 지방인이었거나, 서울로 도망은 향리 출신으로 출세의 욕구가 강렬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 崔氏家로부터 소의당한 과거의 명문 출신도 있었다. 둘째로, 武人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자들로서, 政變 당시에는 자기 夜別抄의 단위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세째로, 이들 가운데에

31) 金塘澤은 三別抄가 崔氏家의 門客에 의해 움직여지는 崔氏家의 私兵과 같은 존재라고 언급하고 있다(앞의 논문, p. 307).

는 金俊의 천거로 이같은 武班職을 제수받고 夜別抄 등에 편입된 자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崔氏執權者보다는 金俊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반드시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崔瑄가 주살될 당시에, C 집단은 金俊을 중심으로 결집된 군사력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金俊의 세력을 그 성격에 따라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하나는 崔氏執權者에 사적으로 밀착되어 있던 家兵이나 文武의 家臣으로 구성된 A 집단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崔氏家의 사적 기구는 政房이나 書房과 같은 文臣機構와 都房·家兵 등의 武臣機構가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함으로써 崔氏執權者와 사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崔氏家의 大事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기구들이 모두 동원되곤 했다. 집권자의 습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家臣들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 때문에 상호 긴밀한 유대를 맺어왔을 것이다. 예를 들면, 政房의 文臣이 都房에 소속된 武臣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혹은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정의 家臣과의 유대 관계가 지속되면서 이들은 공통의 이익이나 문제점을 갖는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세력이 崔氏家 안에 존재했다고 본다. 그것은 政房·都房·家兵의 일부 구성원들이 서로 연관을 맺고 있던 일군의 세력을 찾아봄으로써 입증될 것이다. 金俊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세력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金俊—柳墩—宋吉儒·朴松庇로 묶어지는 집단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당시 崔氏家의 抗蒙政策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던 宰樞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일군의 親蒙勢力인 B 집단이다. 그 대표적인 朴希實 등은, 특히 적극적으로 講和論을 폈던 金寶鼎에 의해 조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배후에 宰樞라는 거대한 정치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군의 군사력—神義軍—을 지휘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

C 집단은 崔氏執權者의 직접적인 통수권이 미치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

관계가 미약한 군사력—예컨대, 夜別抄—으로, 崔氏執權者보다는 金俊과 더욱 밀착된 金俊 휘하의 군사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표로써 작성하여 제시하면 <表 3>과 같다.

<表 3> 崔曄誅殺政變에 참여한 金俊勢力的 몇가지 類型

崔曄로부터 소의당한 家臣 集團	家兵(長)	金俊·金承俊·金大材·金用材·金式材· 李公柱
	門客將軍	宋吉儒·朴松庇
	文 臣	柳 璈
親蒙的인 武臣集團	朴希實·李延紹·朴天湜	
金俊 휘하의 軍事行 動集團	林 衍·車松祐·金洪說·白永貞·徐 挺·李梯·趙文 柱·吳薦山·徐均漢·李宗器	

정변에 가담한 金俊勢力的 성격을 통해 미루어 본다면, 崔曄의 주살은 崔曄로부터 소의당한 家臣集團과 親蒙的인 武臣集團에 의해 계획·결정되었을 것이고, 金俊 휘하의 군사력인 일군의 家兵과 夜別抄, 그리고 親蒙勢力 휘하의 일부 神義軍에 의해 행동으로 옮겨졌으리라고 본다.

IV. 崔氏家の 崩壞와 金俊勢力的 向背

그러면 金俊으로 대표되는 이들 세력이 어떠한 공동의 이해 관계 속에서 연합되었을까. 이 점은 金俊勢력과 崔氏家の 몰락과의 일정한 관계를 살피는 데에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金俊과 崔曄와의 대립 관계를 살피기에 앞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은 崔曄의 襲權에 관련된 崔良伯勢力的 성격이다. 이미 필자는, 崔沆이 金俊勢力을 특별히 친신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 崔沆이 죽음에 직면하여서는, 金俊勢력이 아닌 崔良伯勢力에게 死後의 일처리를 맡겼다. 이런 사실은, 崔良伯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家臣集團이 金俊勢력과 다른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崔沆은 이런 점들이 崔誼의 측면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崔沆이 몇 차례에 걸쳐서 崔誼를 보필해 주도록 당부했던 柳能이나 宣烈이 崔沆執權期에 활동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생각컨대, 崔沆 側近의 文臣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柳能의 家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하고 있다.

柳光植(中略)累遷參知政事 揚歷中外 皆有聲績 高宗八年 以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致仕 逍遙自適 世稱壽富雙全 卒 輟朝三日(中略)子詔 官至平章事 子能 寶文閣待制 諂事崔誼 弄權歎怨 及金俊誅誼 能亦被誅(高麗史 101 柳光植傳)

柳能은 祖父 때부터 崔氏執權者의 신임을 얻으며 성장한 당대의 명문 출신이었다. 더군다나 그의 父인 柳詔는 崔沆의 집권기에 樞密院副使를 거쳐서,³²⁾ 柳能이 죽을 당시에는 平章事에 재임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武臣의 경우로 다음에 인용하는 蔡楨을 지적할 수 있다.

蔡松年 東州平康縣人(中略)爲忠獻所重 累歷樞密承宣御史大夫參知政事 高宗三十八年 以中書侍郎平章事 卒 能終始富貴 子楨(中略)以蔭進 累遷樞密副使御史大夫(高麗史 102 蔡松年傳)

蔡楨의 父인 蔡松年은 崔忠獻이 중히 여기는 인물이었고, 그가 죽을 당시인 崔沆執權期까지 계속해서 富貴를 누리고 있었다. 이같은 가문의 배경으로 蔡楨 역시 崔誼가 집권할 당시에는 이미 門客大將軍이 되었다.

앞에서 崔誼의 집권에 참가했던 일군의 家臣集團을 살펴본 결과, 前章에서 검토한 金俊勢力과는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金俊勢力으로 상정된 인물들이 崔氏家나 중앙의 정계에서 오랜 기반을 닦아왔다고 보다는 崔沆代에 갑자기 출세하였던 데에 반하여, 崔良伯의 세력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父나 祖父代에서부터 崔沆 당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정치 세력을 유지해 온 文武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金俊勢力이

32) 《高麗史》24 高宗 38年 正月.

崔沆이라는 집권자의 신임과 지지에 의해서만 존립할 수 있었던 데에 비하여 崔良伯勢力은 崔氏家를 벗어난 전반적인 文武의 집권층이나 왕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崔沆은 왜 崔誼의 집권에 대하여 王이나 文武大臣들의 지지를 받으려 했을까. 崔沆 자신의 집권 과정에서조차도 그들의 지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이다. 崔良伯勢力을 선택해야만 했던 崔沆의 입장은 당시 崔沆이 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래에 인용된 사례들을 통해 그의 입장을 고찰해 보자.

F₍₁₎ (高宗三十九年) 王 以問沆 對曰 大駕不宜輕出江外 公卿 皆希沆意 執不可(高麗史 129 崔忠獻 附 崔沆傳)

F₍₂₎ (高宗四十年) 宰樞會議 皆曰出迎便 沆曰 春秋貢奉不絕 前遣三次使价 三百人未還而猶若是 今雖出迎 恐爲無益 萬一執東宮若安慶公 至城下 遽降 何以處之 皆曰 侍中議是 出迎議寢(同上)

F₍₃₎ 命宰樞致仕及文武四品以上 議却兵之策 兪曰 莫如太子出降 王怒 使承宣李世材 詰之曰 遣太子 則何保無後患耶 議從誰出 宦者閔陽宣 進曰 崔侍中 亦可其議(高麗史 24 高宗 40 年 10 月 辛未)

F₍₄₎ (高宗四十一年) 沆 嘗分日 宴諸王·宰樞·承宣·文武四品以上 自是 宴會無常(高麗史 129 崔忠獻 附 崔沆傳)

F₍₅₎ 蒙古使多可等五十人 貢文牒來諭曰 國王 雖出陸 侍中崔沆·尙書李應烈 周永珪·柳墩等 不出 是爲眞降耶(高麗史 24 高宗 41 年 7 月 戊午)

F₍₆₎ 崔璘 還奏曰 臣至陝州丹溪 見車羅大 言崔沆奉王出陸 則兵可罷 是歲 蒙古所虜男女 無慮二十萬六千八百餘人 殺戮者 不可勝計 所經州郡 皆爲煨燼 自有蒙兵之亂 未有甚於此時也(同上, 41 年 12 月 甲午)

蒙古는 王의 親朝와 出陸을 요구해 왔다. 이에 高麗는 대책에 부신했던 끝에, 高宗 39 年 正月에 蒙古에 사신을 보내어 그 해 6 月에는 王이 出陸하겠다는 임시 변통의 약속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王은 물론 王子의 出陸까지도 崔沆에 의하여 반대되었다(F₍₁₎·F₍₂₎). 그러나 F₍₃₎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당시 宰樞의 대신들의 의견은 主和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 王의 出陸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蒙古는 高宗 40 年(1253) 보복적인 출병을 단

했었으니, 이것이 蒙古의 5차 침입이었다. 高麗의 항전에도 불구하고, 전국토를 점령한 적군은 군사적 압력을 가하며 王의 出陸을 요구했다. 이런 蒙古의 강경한 요구에 崔沆은 끝내 버틸 수 없어서 太子의 出陸을 허락했다(F₍₃₃₎) 곧 이어 王은 出陸하여 蒙使를 영접하였고 아울러 安慶公 涓의 入朝를 단행시키게 되었다.³³⁾ 이런 상황은 당시까지 崔沆이 고집해 온 對蒙抗戰에서의 일보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에 기록되고 있는 F₍₃₄₎의 宴會記事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을 것 같다. 崔沆이 諸王·宰樞·承宣·文武官을 향연함이 이 때부터 無常했다는 것은, 당시의 정세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닐가 추측해 본다. 즉, 崔氏家は 그들의 武力만으로써는 蒙古의 침입을 막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고, 더구나 王權이나 조정의 臣權을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였었다. 자신의 의사나 절대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립조차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蒙古는 王의 出陸이나 安慶公 涓의 入朝로써도 만족치 않았다. 그들은 또 다시 유예가 없는 대공세를 가해 왔고, 최종적으로 崔沆의 出陸을 강요하였던 것이다(F₍₃₅₎·F₍₃₆₎).

위에 인용한 기록은 高宗 39년에서 41년까지의 2년 간의 對蒙關係 기사이지만, 崔沆의 정치적 입장이 크게 변화했음을 살필 수 있었다.³⁴⁾ 이 같은 蒙古와의 문제는 당시 崔氏家와 王·崔氏家와 文武大臣들 간의 관계와도 직결되는 것이었다. 崔沆은 蒙軍의 철수를 위해 차츰 타협의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崔氏政權의 出陸還都'라는 蒙古側의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蒙古와의 관계에서 그는 한편으로는 타협을 다른 한편으로는 抗戰을 병행해야 했다. 바로 이러한 崔沆의 정치적 입장이 金俊勢力을 적극 지지했으면서도, 執權者의 교체기에 당해서는 崔良伯勢力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다. 즉 武人政權의 후계자로서 역량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崔攄는 崔氏家の 家兵조차도 통수

33) 同上, 高宗 40年 11月 辛卯·12月 壬申.

34) 姜晉哲, 앞의 논문 pp. 353~359 참조.

하고 있지 못했던 듯하다. 더군다나 악화되는 對蒙關係 속에서 崔氏家の 존립을 위하여는 타협해야만 했던 崔沆이었다. 따라서 崔誼를 후계자로 추대하는 데에는 王이나 文武大臣들의 호응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때, 자신의 家臣들 가운데,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崔良伯勢力을 崔誼의 추대 세력으로 선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崔沆의 이러한 결정은 崔氏武人政權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기 즉 崔氏家の 몰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후계자 자신이 아닌, 家臣들에 의해 자신의 襲權을 의존했어야 했고, 그 때까지도 균형있게 상호 견제되어 왔던 崔氏家の 家臣들을 분열시킴으로써 崔氏執權機構 안에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을 형성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金俊을 중심한 家臣勢力에게 政變의 불씨를 던진 것은 宋吉儒 事件인 것 같다. 이 사건으로 崔誼는 金俊·柳璥 등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金俊에게 있어서, 그 동안 그의 모든 정치적 활동의 배경이 되었던 崔氏家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金俊이 家兵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家兵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崔氏家로부터 소의당한 金俊이 崔誼와 그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그 이후의 실권자가 된 것은, 단순히 일부의 家臣勢力과 金俊 휘하의 군사력으로만 가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강경한 抗蒙政策을 폈던 崔沆조차도 崔氏政權의 유지를 위하여, 그 정책을 일부 후퇴해야 했고, 따라서 王이나 당시 宰樞의 대신들과도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金俊이 崔誼를 죽이는 것으로써만 정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군다나 金俊이 崔氏의 사적 기구에서 갖는 권한이 반드시 王이나 宰樞의 대신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었을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崔沆은 金俊 등의 家兵長에게 자신의 사적 기구 안에서만 그들의 권한을 발휘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崔氏家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金俊은 한낱

別將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때에, 金寶鼎 등의 宰樞勢力의 지지하에 있던 朴希實과의 연합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면 朴希實은 왜 金俊勢力에 동조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朴希實과 그의 배후 세력인 金寶鼎이 崔氏家를 몰락시키려 했던 의도를 밝힘으로써 해결될 것이다. 高宗 44년 당시, 宰樞의 대신들은 太子의 蒙古 과전을 극구 반대하던 高宗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E₍₃₎). 그러나 出陸만을 요구하던 蒙古側과 그것에 응할 수 없었던 崔氏家와의 사이에 강화를 위한 타협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出陸은 바로 崔氏武人政權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宰樞의 대신과 王으로서의 崔氏家가 존재하는 한 蒙古의 침입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에, 金寶鼎을 비롯한 宰樞의 대신들이 金寶鼎의 세력하에 있던 朴希實·李延紹 등을 내세워 崔誼로부터 소의당한 일부의 家臣勢力과 제휴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崔氏家는 崔誼의 집권과 더불어 崔氏家에서 소의된 일부의 家臣集團과 蒙古와의 강화를 갈구하던 宰樞의 지지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무장 집단의 연합에 의하여 붕괴되었다.

金俊은 高宗 45년 3월, 崔誼를 주살함으로써 새로운 武人政權의 막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실권을 장악하기 위하여는 그의 정적이 될 만한 자들을 정계로부터 제거시켜야 했다. 여기서 그의 최대의 정적이란, 崔氏家를 몰락시켰던 자신의 세력 안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金俊을 중심으로 결집된 연합 세력은 崔氏家의 몰락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달성된 뒤에는 그들을 결함시킬 만한 아무런 요소도 없었다. 더구나 奴隸의 신분이다 보잘 것 없는 직위에 있던 金俊으로서의 과거 崔氏執權者가 갖던 권한을 자기 수중에 넣지 않고는, 자신의 생존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金俊은 그 해 11월 柳璥에게 제수된 承宣職을 파직시키는 것에서부터 정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金承俊·林衍等 諸功臣 斬將軍禹得圭 指諭金得龍·別將梁和流·郎將慶元諱于島
初柳璥誅崔誼 置政房于便殿之側 掌銓注 凡國家機務皆決焉 金承俊自謂功高秩卑 心

常快怏(中略)璵多置甲第 權勢日熾 門庭如市 承俊·林衍等諸功臣忌之 譖于金仁俊 仁俊以聞于王 王欲奪其權 罷璵承宣 除簽書樞密事(高麗史節要 17 高宗 45 年 11 月)

위의 기록에 의하면, 柳璵는 정변 직후에 政房을 便殿의 옆에 두고 모든 인사 행정과 국가 기무를 장악하였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휘하에 사적인 군사력도 결집시키고 있었다. 그 군사력의 대표자들이 禹得圭·金得龍·梁和流·慶元祿 등인 것이다. 반면에 자신과 함께 정변을 주도했던 다른 공신들의 세력을 의도적으로 억제시키고 있었다. 공신 가운데 유일하게 文臣이었던 柳璵는 王과 밀착하기가 쉬웠고, 王權이라는 지지 배경으로써 점차 정권을 독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柳璵의 행동은 다른 功臣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했다. 이에 金俊은 그들 공신들을 다시 결합하여 柳璵勢力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일단 柳璵勢力을 제거한 金俊은 공신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무마시켜야 했다. 그들에 대한 각별한 대우와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세력이 자신을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시켜야 하기도 했다. 특히 朴希實과 그와 직결되는 宰樞의 세력을 우선 염두에 두어야 했다. 왜냐하면 崔氏家の 몰락의 한 원인으로, 바로 이들 親蒙勢力과의 타협에 실패한 것을 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金俊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면서도, 그들의 정치적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에 고심하지 않았을가 짐작된다.

그런데 E₍₂₎-₍₄₎에서 보여 주는 朴希實·趙文柱·朴天植의 對蒙關係 기사나, 또는 李世材·金寶鼎 등이 太子를 수행했음을 알려주는 기록 E₍₇₎은 이런 점에서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對蒙政策이 金俊政權의 성립과 관련하여 더 말할 나위없이 중요했었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朴希實 등의 정변 핵심 인물을 蒙古에 파견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金俊은 당시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朴希實·金寶鼎 세력을 국외로 축출시킴으로써 국내의 중앙 정계에서

자신의 세력을 굳건히 다지려 했던 의도도 적지는 않았으리라고 본다. 당시 朴希實은 元宗 即位年 8월에(E₍₃₎), 金寶鼎은 元宗 元年 4월에 귀국하지만,³⁵⁾ 이 때는 이미 金俊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武人執權體制가 정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당시는 高宗 末年과 王이 없던 元宗 初年으로, 金俊으로서는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는데 별다른 난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元宗 元年 이후에 朴希實과 金寶鼎의 정치 활동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金俊은 이미 구축해 놓은 자신의 집권체제 안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金俊이 武人政權의 성격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出陸講和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고로 군사력을 보유한 親蒙勢力의 존재는 金俊政權에 치명적인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정제로부터 제외되어졌을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金俊은 元宗 元年 右副承宣에서 樞密院副使로(6월), 그리고 또 同知樞密院事御史大夫로(12월) 累遷하였고, 柳璥에게 주어졌던 衛社功臣의 서열 1위를 자신에게로 대치시키기도 했다.³⁶⁾

金俊은 그에게 가장 위협적인 柳璥·朴希實 등의 세력을 타도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세력도 제압해버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金俊의 태도를 아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G₍₁₎ 樞密林衍 嘗與俊子爭田 俊曰 我在尙爾 況死乎 吾寧忍視此人耶 又衍妻嘗手殺其奴 俊曰 此婦性惡 當遠流 衍聞之 益銜(高麗史 130 林衍傳)

G₍₂₎ 冲 清介自守 見其兄與諸姪所 常切責 俊與諸子 皆憚之 冲臨刑嘆曰 予無所知 人皆惜之(同上, 金俊傳)

G₍₃₎ 禮部侍郎金軌 謂左僕射朴松庇曰(中略) 勝賢 今又敢作浮言 奏營殿閣 且請於穴口親設大日王道場 是不可信也 請公禁之 松庇以告俊 俊深惑勝賢之言

G₍₁₎에는, 金俊과 林衍 사이의 불화와 갈등이 나타나 있다. 林衍은 金俊

35) 《高麗史》25 元宗 元年 4月 庚申.

36) 同上, 元宗 元年 6月 丁酉·壬寅·12月 庚申.

의 아들과 田地를 다투는가 하면, 그의 아내는 奴婢를 手殺하기까지 했다. 金俊은 이러한 林衍과 그의 아내에 대해 심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金俊이 생존해 있을 때, 그의 아들과 田地를 다투다면 자신이 죽은 후에는 정권을 쟁취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태에서 林衍에게 커다란 정치적 권한을 주었을 리는 없을 것이다. 한편 G₍₂₎에 보이는 金冲은 金俊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그도 金俊과 그의 아들에 대하여 불만이 컸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金俊은 金承俊까지도 정치적 권한을 제한시켰을 것이다. 政變의 주동 인물이었던 朴松庇도 역시 元宗 5년 축출당했다.³⁷⁾ 그 이유를 G₍₃₎에서 찾을 수 있다. 蒙古가 元宗의 入朝를 요구해 오자, 王과 金俊은 그것을 피해보고자 風水를 業으로 하던 白勝賢의 말을 따라 假闕을 세우려 했다. 그 때에, 禮部侍郎인 金軌가 白勝賢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논박했다. 朴松庇도 역시 金軌의 주장에 동조하여 金俊에게 그 부당함을 전했고 그로 인해 파직당하게 되었다. 金俊의 정책에 순순히 따르려 하지않은 朴松庇를 정계로부터 제거시킴으로써, 金俊의 독단적인 무인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元宗 5년, 金俊은 과거 崔氏執權者에 제만 주어졌던 敎定別監을 제수받기에 이르렀다.³⁸⁾

이제까지 살핀 바에 의하면, 崔氏家의 몰락은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의 결과라기 보다는 崔氏家에 반감을 품었던 다양한 정치 집단의 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崔氏家의 타도라는 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이들 연합 세력은 곧 붕괴되었다. 이에, 金俊은 치밀한 계획하에 연합 세력 안의 정적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비로서 金俊政權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

37) 《高麗史》26 元宗 5年 8月 壬子.

38) 同上, 元宗 5年 8月 乙巳.

V. 맺음말

이상에서 金俊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과 관련지어 崔氏武人政權의 붕괴 과정을 살펴보았다. 설명해 온 바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金俊은 崔沆의 집권과 함께 崔氏家의 家兵을 지휘하게 되었으며 崔沆의 親信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崔誼의 집권을 계기로 崔氏武人政權에 반기를 들고 崔誼를 주살하는 政變을 주도해 나갔다. 崔誼를 誅殺하는데 참가했던 그의 세력은 金俊을 중심으로 하여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崔氏家의 文武家臣으로 연합된 세력이다. 다른 하나는 宰樞의 세력을 배후로 하는 무장 세력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崔氏執權者의 직접적인 통수가 미치지 못하는, 사적 기구 밖에 존재하는 金俊 휘하의 군사력이었다.

金俊의 세력과 유사한 세력이 崔氏家에 병존하고 있었다. 이 세력은 王과 文武大臣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에 金俊勢力은 崔沆의 특별한 배려하에 출세하게 된 인물들로, 정계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다. 蒙古의 침략으로 쇠약해진 崔氏家는 王이나 文武大臣들과의 타협에 의하지 않고는 유지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崔氏家는 崔誼의 승권을 崔良白勢力—정계에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곧 崔氏家의 家臣들의 분열을 초래하였고, 집권자로부터 소외당한 일군의 家臣集團인 金俊勢力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對蒙關係의 타결점을 모색하던 宰樞의 대신들은 崔氏家가 존립하는 한 蒙古와의 강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때에, 親蒙의 경향을 갖고 있던 일부의 대신들은 金寶鼎 휘하의 무장 세력을 조정하여, 崔氏家로부터 소외당한 家臣勢力과 제휴를 맺게 했다. 고로, 崔氏家의 몰락은 이들 연합된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崔氏家の 崩壞가 곧 바로 金俊의 집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변에 참가한 세력은 각자의 이해 관계에 쫓아서 결집되었기 때문에, 곧 자체 안에서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金俊은 단계적으로 자신의 정적이 될 대상을 제거해 갔다. 우선 가장 위협적인 柳璥과 朴希實 등으로 대표되는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金俊의 집권 체제는 일단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었다.